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결정에 대한 일·생활 분야 영향요인*

한지영^a · 남중수^{b**} · 김용^c · 홍영표^d

^a안양대학교 교수(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b아이엔케이(주) 수석연구원(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c아이엔케이(주) 이사(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d안양대학교 연구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Factors Influencing the Registration as Managers of Female Farmers on the Field of Work and Life

Jiyoung Han^a · Jungsoo Nam^b · Yong Kim^c · Young Pyo Hong^d

^aAssociate Professor, Anyang University, Anyang, Kyeonggi, Korea

^bSenior Researcher, INK Co, Ltd., Seoul, Korea

^cDirector, INK Co, Ltd., Seoul, Korea

^dResearcher, Anyang University, Anyang, Kyeonggi,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gistration of managers or co-managers in agricultural management in the field of work and life of female farmer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registration of female farmers as managers and securing the status of women. In this study, binomial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043 questionnaire responses collected on&offlin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uration of farming, decision-making initiative, the experience of the supporting policies for farming activity, the activities of the crop group/research or female farmer's group, and the experience of supporting policies for self-development and leisure activit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gistration of female farmers.

Key words: female farmer, field of work and life, register as managers, binomial logit analysis

1. 서론

우리나라는 농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이상호, 2018). 지방의 소멸은

국가경쟁력의 유지와 발전에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에 농촌의 인구를 유지 또는 성장시킬 동력이 필요하다.

농촌인구의 유출은 도농간 생활서비스 수준과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면의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고(정도채, 2019), 정주민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의료서비스,

주요어: 여성농업인, 일·생활 분야, 경영주 등록, 이항로짓분석

*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564904)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남중수) 전화: 02-889-0203, e-mail: middlewater82@naver.com

대중교통, 자녀 양육 및 보호, 생활서비스, 여가지원시설, 자녀교육 등) 모두에서 도시민에 비해서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유은영, 2018). 또한, 도시가구에 대비한 농가의 소득은 1990년 97.2%에서 2018년 65.4%로 크게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도농간의 격차가 더 커짐에 따라(정은미, 김태환, & 박은지, 2020) 농가인구의 감소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의 사회적 여건이 농촌의 위기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농촌과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여성농업인은 단순한 농업보조자나 가족종사자로서 인식이 되어 왔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가의 구성이 영농인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농업인은 농업 주종사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1).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더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농촌인구의 감소는 농업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상당 부분 기계화가 진행된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밭농사의 대표작물인 채소, 과실, 특용작물 생산이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상황에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김문희, & 김태중, 2020).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농촌관광, 농산물의 가공 판매, 지역사회 활동 등으로 농업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김경미, 이진영, & 최윤지, 2006).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주로 농가의 가장인 남성이 자력으로 농업 경영주가 되고 그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은 농업 노동과 경영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무급 가족 종사자에 불과한 직업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를 2016년 3월부터 도입했지만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여성농업인의 수는 2016년 24.9%에서 2019년 27.6%로 등록 증가 속도가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정은미, 김태환, & 박은지, 2020). 이는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하더라도 경영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경영주 외 농업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여성인구 증가 등의 현실에서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양성하고 직업에서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와 요구 다양화로 여성의 부드럽고 친근한 경영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

에서 소외되고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활성화와 경영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강혜정, 2013). 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도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여성농업인의 필요성 지각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는 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보니 여성농업인의 일·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어떤 요인들이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주는지 면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탐색해 봄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을 유도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

과거 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을 ‘농촌부녀’ 또는 ‘농가주부’라고 호칭하였다. 당시 농촌의 여성은 모든 가사일을 전담하는 부담으로 인해 농업노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농업분야에서는 농업노동의 주체라고 하기보다는 보조자로 인식되었다. 이에 여성농업인을 의식주 개선, 저축, 농외소득 활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에 부합한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양적인 측면에서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능가하고 농업생산 활동 종사 시간도 남성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어 농업 관련 사업과 경영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정은미, 마상진, & 민자혜, 2012).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이다(강혜정, 2012).

현재 여성농업인은 농촌거주 여성으로 다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류기덕, 2007). 여성농업인의 다중적 역할로 첫 번째는 가사에서 역할이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남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분업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성농업인들은 농가 주부이자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농가경영에 있어서 가정경영은 여성이, 농업경영은 주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대부분이다. 둘째, 자녀양육 및 사회화 역할이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의 교통과 사교육 인프라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양육기 여성농업인들은 자녀의 방과 후 지도와 돌보기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셋째, 농업노동에서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가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경영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도시의 여성이 전업주부로서의 역할 이외 직업을 갖는 경우 독립적인 활동영역을 갖고 가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면, 농촌여성은 농업노동의 참여가 직업임과 동시에 가계 경제활동이 되므로 일과 생활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Pearson(1979)은 미국 콜로라도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주로 수행하는 역할을 독립적생산자, 농업파트너, 농가주부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Graig(1979)는 호주 농촌 여성의 역할로 Pearson(1979)의 구분에 여성가장을 추가하였다. Gasson(1980)은 영국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구분하는데 농사직업의 빈도, 농업책임감, 부분분업, 자원봉사조직 참여, 가사접근, 가사책임감,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농가주부, 주부농민/농업보조자, 여성농민으로 구분했다. Bokemeier, & Garkovich(1987)은 농업참여도와 의사결정참여도, 자아정체감 등을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농가주부, 농업보조자, 사업경영자, 전업 농업파트너, 독립적 농업생산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역할로 대부분 농업에서의 역할과 가사에서 역할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에서의 역할은 영농활동 및 경영활동 등의 참여 정도에 따라 독립적인 생산자 또는 파트너, 보조자 등으로 구분하고 가사에서의 역할로 농가주부로서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기환(1997)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농업노동 참여구조, 기술 수준, 농작업기계 접근성, 여성 의식 등을 기준으로 보조적 영농종사자, 전문적 농업경영인, 자영업 및 전문직, 전업주부, 농외취업 주부 등으로 구분하였고 김영옥, & 김이선(1999)은 농사일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농업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여성농업경영주, 농업경영주의 파트너, 농업노동자+농업보조자로 역할을 구분하였다. 김주숙(1999)은 여성들의 직업적 분화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여성농민, 농가전업주부, 농업생산 참여 여성, 농외취업 여성, 농가소속 자영업 여성으로 역할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농촌여성의 영농지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삶의 전반적인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영농활동 및 농외소득활동의 참여도만을 고려하는 경향을 가진다.

반면, 송양호(2005)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가족종사자, 농

업종사자, 지역사회활동자로서 여성농업인으로 구분하였고, 박지은(2021)은 남성이 영농이나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주로 공식적 직함을 맡는 반면에 여성은 비공식과 공식적 역할을 넘나들며 개입하게 되어 영농참여 외 다양한 역할이 동시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하면서 여성의 노동 역할을 ‘여성농민경영주’와 ‘여성농업노동자’ 사이의 영농인, 여성생계부양자, 여성가족돌봄 및 마을인팍돌봄노동자, 여성가사노동자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의 이러한 역할분류는 여성농업인이 직업 및 가족, 지역사회 등에서 가계소득 기여자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역할만을 고려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이 개인적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 및 여가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여가는 개인에게 휴식제공 뿐만 아니라 농사일과 가사 및 육아노동 등에 지친 여성들에게 노동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할 수 있고(공윤경, 2018), 여성농업인의 자기개발활동은 여성농업인이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인적자원 수준을 갖추고 의사결정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정은미, 박석두, 김용렬, 김우태, & 최세균, 2013).

국내의 문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영농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수준으로 구분하고 가사활동에서의 역할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의 삶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역할 수행자로서 영농인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분야는 영농활동, 가정활동, 공공 및 사회활동과 더불어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지위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주, 경영주의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 3가지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하며, 공동경영주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이고, 경영주 외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한다(정은미, 김태환, & 박은지, 2020).

정부는 2001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지원해 왔지만(황미진, 윤순덕, & 최정신, 2017), 농업에서 여성을 가족종사자 및 농업보조자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여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Pearson, 1979), 이러한 인식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률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8

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들은 스스로에 대해 경영주(25.4%) 또는 공동경영주(13.0%)보다 보수가 없는 무급 가족종사자(59.3%)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2019년 기준 여성농업인 중 경영주 등록 비율은 27.6%로(농림축산식품부, 2020), 여성농업인이 스스로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낮다. 여성농업인 스스로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60대가 32.1%, 70대 이상이 되면 55.4%로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농업경영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자식을 양육하고 살림을 전담하면서 가정적이고 의존적인 내부의 일에 한정되어 순종과 종속을 요구받았고(신경자, 2002), 농촌지역의 여성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농업의 영역에서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였음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평등과 권리의 주장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참고 견뎌온 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심순자, 1996; Mu, & Walle, 2001).

유럽평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가 2011년 제출한 ‘결의서 1806’에서 여성이 농촌 문화의 보존과 농촌 경제 유지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하지만 농촌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회원국별로 농촌의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작업반을 설치하고 농촌여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을 위한 기업경영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여성 농촌관광협회를 조직하여 농촌 여성의 일자리 참여와 농촌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여성의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다방면으로 후원하고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참여 주체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는 농업부문의 여성 경영체와 노동자를 위한 국가 관측소(National Observatory for Female Enterprise and Labor in Agriculture, ONILFA)를 설립하여 농촌 여성의 고용 기회를 평가하고 고용 기회 향상을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이정혜, 2017). 프랑스에서는 2000년 배우자-동업자 지위가 처음 도입되어 농촌 여성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5년의 농업계획법(Loi d'orientation de 2005)에 의해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정은미, 2012). 일본은 가족경영협약 제도에서 농가 내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보수,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농업인 권리와 지위 향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초기 가족경영협약 제도는 부모와 자식 또는 영농승계자 간의 협약 형태였으나 점차 부부 중심으로 농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부부간의 협약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가족경영협약 체결 농가 수가 2000년 14,777호에서 2018년 57,605호로 2.8배 증가하였다(이상호, 2019).

여성농업인의 경영주(단독 및 공동) 등록은 영농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높여 영농활동에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할 뿐 아니라 보편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직업인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역할 대비 권리 신장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농업과 농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 여성농업인의 일·생활 분야와 경영주 등록 영향 요인

개인의 일·생활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일 분야, 가정 분야, 건강·개인적 활동을 포함하는 여가 분야, 자신을 위한 개발과 성장의 분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박영대, 김정운, 이장주, & 박정열, 2004; 박주혜, 2008; 이윤경, 2009; 장혜경, 2003; Frone, 2003; Greenhaus, Collins, & Shaw, 2003).

일(work)은 일반적으로 유급노동을 의미하고 생활(life)은 일이 아닌 분야를 의미하지만 가정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일은 주로 과업과 직무환경, 일과 관련된 개인의 가치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며(Morf, 1989) 개인이 업무 수행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는 행위로 정의된다. 여성농업인에 있어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영농활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급가족종사자 및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영농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받기 힘들었다. 여성농업인이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영농활동에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일과 관련된 분야의 환경적 조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일과 생활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농가에서 경영이양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간의 이행 단계들을 거쳐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어(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 2018; Lobley, Baker, & Whitehead, 2010; Potter, & Lobley, 1996; Uchiyama, Lobley, Errington, & Yanagimura, 2008), 여성농업인의 영농종사기간은 경영주 등록에 중요한 영향변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농가의 주소특작물에서 곡류 및 식량작물, 채소의 생산은 노동집약적인 농업부문인데 반해, 과수, 화훼, 축산, 특작부부는 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

본직약적인 농업부문이라 할 수 있다(이성호, & 김정호, 1995). 자본의 투입정도는 경영주 등록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영주 등록 여부가 주소 득작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외 일자리가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업을 중단할 확률이 높는데 이는 농외 소득활동이 농가가 농업을 그만두는 큰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Stiglitz, & Weiss, 2000). 이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농업인이 겸업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정기적인 겸업소득은 농업인 혜택 및 경영주 등록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보다 집중하게 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농촌 여성의 지위는 가사 및 영농 결정에 얼마나 존중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Rosaldo, 1974; Sanday, 1974), 이 또한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life)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과 가족, 여가로 구분되기도 하고(Rapoport, & Rapoport, 1975) 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으로 가정, 개인의 발전, 여가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되고 있다(채연주, & 윤세준, 2012). 여성의 생활에서 가정은 여성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가족문제로 확대되어 인식되고 있고 주로 기혼 여성의 역할갈등에 대한 연구부터 일과 가족의 양립, 일과 가족 균형감 등 지금까지 일과 가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정영금, 2006). 여성농업인에게 있어서 가정의 영역은 일과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이며 여성농업인이 활발하게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업무 환경 고려가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농촌 여성의 총 노동시간도 남성을 초과해왔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비중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아이 및 노인 돌봄, 마을회관 관리, 마을잔치 준비와 같은 공동작업 등 젠더화된 노동은 그림자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다(Illich, 1981).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자와 가사관리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가사생활에서의 생활시간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생활시간 분배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의 생활 SOC 접근성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농촌여성들의 조직활동은 가정 내부에 한정되어 있던 역할을 외부로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신현옥, 2000), 여성농업인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Shortall, 1993). 여성농업인의 조직활동은 개인적 차원 이외 여성의 지위 향상과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차원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한다(이선영, & 황미진, 2019; Ward, 1996; Williams, & Howard, 2007). 여성농업인의 조직

활동은 개인의 영농과 가정의 삶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생활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성은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한계가 있지만 남성은 쉽게 남성 지배적인 규모가 큰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다(Kim, & Sherraden, 2014). 농업생산단체나 지역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인 농업 규모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농업분야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따라 농촌에서 여성의 조직과 네트워크는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유은영, 2017).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및 농업 참여에 농업생산단체 또는 지역사회단체의 활동 여부와 단체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의미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의 성장욕구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도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 발전시켜 나가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의미한다. 여성들의 '나'에 대한 성장욕구와 일을 통한 성장욕구의 충족은 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김승희, & 김선미, 2013), 개인의 시간을 일과 가정의 역할에만 쓰는 것보다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일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의 심리적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손영미, & 박정열, 2015).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요구됨으로써(이호철, 최수영, & 박재홍, 2002) 자기개발활동은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영농활동에서 존재감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는 일과는 다른 삶의 독특한 분야이며, 개인의 심리적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것으로(김정운, & 박정열, 2004),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면 구성원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이직 예방과 직무에의 만족도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oughhead, 1989).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자기개발활동과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충분성 인식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에 이어져 경영주 등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Mishra, & El-Osta(2008)는 정부의 농업 정책이 경영이양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는데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경영이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정책 경험이 있는 경우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 경험이 경영주 이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삶에 있어서 영농활동 외에 과도한 가사부담이 갈등을 형성할 수 있고, 영농활동 참여와 가사활동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서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영농활동 관련 변인군 외에도 가사활동, 사회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변인군을 포함하고 각 영역별 유의미한 변인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국내 여성농업인의 경영주(단독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등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농촌에서 여성의 영농지위 확보가 농촌 및 농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서울시 제외)에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되었다. 온라인 응답자 695부 중 불성실 응답 및 결측치가 포함된 응답 278부를 제외한 417부와 오프라인 응답자 798부 중 불성실 응답 및 결측치가 포함된 응답 172부를 제외한 626를 합하여 총 1,043 개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도출하기 위해 김정설, & 이정해(2017)와 이상열(2012)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동기 유형, 김대희, & 신운호(2012)의 영농작물 구분, 김경미, & 고운미(2005)의 영농의사결정 참여정도, 이재기(2018)의 농촌생활인프라 유형, 조영숙 외(2004)의 농촌주민 사회단체 유형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변인 구성 초안을 여성농업인 3인을 대상으로 일과 생활 분야에 대해 시간조사와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와 통합한 후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 전문가 2인과 농산업교육 분야 및 농업농촌개발 분야 전문가 4인의 전문가협의회를 토대로 영향요인을 확정하였다. 변인의 항목 구성은 여성농업인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초안을 구성하고 여성농

업인 정책 개발과 농산업교육 및 농업농촌개발 분야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영농활동 관련 변인(영농종사기간, 농업종사계기, 주소득작물, 겸업소득 활동 여부, 영농의사결정 주도성, 영농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 가사활동 관련 변인(생활시간 분배 적절성, 생활SOC 접근성,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여부), 사회활동 관련 변인(가입 지역사회단체, 가입 지역사회단체 만족도, 사회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관련 변인(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영농종사기간은 여성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연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영농종사계기는 본가의 영농 계승, 배우자의 영농 계승, 본인선택 귀농 창업, 배우자선택 귀농 창업, 농촌이주 및 기타로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의 해당 여부를 측정하였다. 주요한 소득작물은 곡류, 두류, 서류, 채소, 과수, 축산, 화훼 및 기타로 구분하여 항목의 해당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주요한 소득작물의 유형이 중복가능함을 고려하여 최대 3개 유형까지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겸업소득 활동 여부는 영농활동 외의 소득활동 여부를 측정했고 영농의사결정 주도성은 연간영농계획, 영농활동 및 운영, 농축산물 판매,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항목에 대해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영농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는 영농활동 지원 정책 내용을 안내한 후 해당 정책의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생활시간 분배 적절성은 여성농업인이 생활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생활SOC 접근성은 보건·의료 시설, 문화·복지·교육시설, 육아 및 복지시설, 자녀교육기관, 생활용품 구매 및 쇼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는 가사활동 지원 정책 내용을 안내한 후 해당 정책의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가입지역사회단체는 작목반/연구회, 조합/농업회사법인, 농(축)협 조합, 마을단위단체(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여성농업인단체, 지역사회단체(4-H 등)의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측정하였다. 가입지역사회단체 만족도는 여성농업인이 가입한 지역사회단체 활동의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는 사회활동 지원 정책 내용을 안내한 후 해당 정책의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은 여성농업인의 자기개발 및

〈표 1〉 연구 변인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분야	하위 변인	변인 설명	비고
영농활동		영농종사기간	-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한 기간	연속형
		농업종사계기	- 본가의 영농 계승, 배우자의 영농계승, 본인선택 귀농 창업, 배우자선택 귀농 창업, 농촌이주 및 기타로 구분	더미처리
		주요한 소득작물	- 곡류, 두류, 서류, 채소, 화훼, 과수, 축산, 화훼 및 기타로 구분	더미처리
		겸업소득 활동	- 영농활동 외 겸업 소득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더미처리
		영농의사결정 주도성	- 연간영농계획, 영농활동 및 운영, 농축산물 판매, 수입과 지출관리 등의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정도	likert 5점 척도
		영농활동 지원 정책 경험	영농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	더미처리
독립변인	가사활동	생활시간 분배 적절성	- 생활분야별 시간분배 적절성에 대한 인식	likert 5점 척도
		생활SOC 접근성	- 보건·의료 시설, 문화·복지·교육시설, 육아 및 복지시설, 자녀교육기관, 생활용품 구매 및 쇼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likert(5점) 척도로 측정된 값의 평균	likert 5점 척도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	더미처리
		가입 사회 단체	- 작목반/연구회, 조합/농업회사법인, 농(축)협 조합, 마을단체(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여성농업인단체, 지역사회단체(4-H 등)의 가입 및 활동 여부	더미처리
사회활동		가입지역사회 단체 만족도	- 여성농업인이 가입한 지역사회단체의 만족도	likert 5점 척도
		사회활동 지원 정책 경험	- 사회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	더미처리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	-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에 대한 인식
종속변인	경영주 등록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 정책 경험	-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의 경험 여부	더미처리
		경영주 등록	- 경영주(단독경영주, 공동경영주)와 그 외로 구분	더미처리

여가활동의 충분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는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 정책 내용을 안내한 후 해당 정책의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여부는 영농지위에 대한 질문에서 단독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는 경영주로, 그 외는 경영주가 아닌 것으로 측정하였다.

활동 관련 변인(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 정책 혜택 여부,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농업경영주(단독경영주,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를 종속변수로 보고 이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3.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항로지분석은 회귀분석 수행 시 종속변수가 선형이 아니고 이산적일 경우 많이 활용되며 하나의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선택 범주가 있을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변인의 분석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관련 변인(영농종사기간, 농업종사계기, 주요한 소득작물, 겸업소득 활동 여부, 영농의사결정주도성, 영농활동지원정책 혜택여부)과 가사활동 관련 변인(생활시간분배 적절성, 생활SOC 접근성, 온라인 접속환경 수준, 가사활동 지원정책 혜택여부), 사회활동 관련 변인(가입지역단체, 가입지역단체 만족도, 사회활동 지원정책 혜택여부), 자기개발 및 여가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 분포로는 49세 이하가 163명(15.6%), 50세 ~ 59세가 445명(42.7%), 60세 이상이 435명(41.7%)으로 구성되었다. 학력으로는 고졸 이하가 688명(66.0%), 전문대 졸업이 143명(13.7%),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212명(20.3%)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수도권(경기, 인천)이 128명(12.3%), 비수도권(경기, 인천 제외)이 915명(87.7%)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로는 배우자 있음이 908명(87.1%),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미혼)이 135명(12.9%)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4.2. 분석변수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수준

연속형 변수인 농업종사기간의 총 1,043명 응답자 평균은 21.38년이고 영농의사결정의 주도성은 5점 만점에 3.19점으로 나타났다. 영농의사결정에 있어서 보통 이상의 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시간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5.0만점)에서 평균은 2.68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어서 생활시간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활SOC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5.0만점)은 2.77점으로 접근성이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지역사회단체 만족도(5.0만점)는 3.97점으로 지역사회단체 활동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5.0만점)에 대해서 평균이 3.11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충분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범주형 변수에서 여성농업인의 특성 수준은 다음과 같다. 영농활동 관련 변인에서 농업종사계기로 배우자의 영농 계승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1,043명 중 560명(53.7%)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많은 수가 배우자의 영농 결정 상황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주소득 작물로는 채소가 416명(39.9%)이고, 곡류가 402명(38.5%), 과수가

284명(27.2)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겸업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615명(59.0%)으로 과반의 여성농업인이 겸업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는 429명(41.1%)이 영농활동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활동 지원정책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절반이 되지 않는 것에서 영농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277명(26.6%)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회 단체는 여성농업인 단체(761명, 73.0%), 마을단위단체(461명, 44.2%), 농(축)협 조합(396명, 3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농활동과 관련한 단체인 작목반/연구회, 조합/영농회사법인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작목반/연구회, 조합/농업회사법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활동 지원정책의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사회활동 지원정책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66명(6.3%)으로 매우 낮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626명(60.0%)으로 다른 분야의 지원 정책보다는 수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는 644명(61.7%)으로 절반 이상이 단독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표본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비율이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비해 높지만 경영주 등록 여성농업인 표본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경영주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표 4> 참조).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유형	빈도(명)	비율(%)
연령	49세 이하	163	15.6
	50세 ~ 59세	445	42.7
	60세 이상	435	41.7
학력	고졸 이하	688	66.0
	전문대 졸	143	13.7
	4년제 대졸 이상	212	20.3
거주지역	수도권(경기, 인천)	128	12.3
	비수도권(경기, 인천 제외)	915	87.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08	87.1
	배우자 없음	135	12.9
합계		1,043	100.0

<표 3> 연속형 연구변인의 수준

구분	분야	하위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인	영농활동	농업종사기간	1,043	21.38	12.775
		영농의사결정 주도성	1,043	3.19	.963
	가사활동	생활시간분배적절성	1,043	2.68	1.071
		생활SOC 접근성	1,043	2.77	.843
	사회활동	가입지역사회단체 만족도	1,043	3.97	.766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	1,043	3.11

〈표 4〉 범주형 연구변인의 수준

구분	분야	하위 변인	빈도(명)	비율(%)	
		합계	1,043	100.0	
독립변인	영농활동	농업종사시기	본가의 영농 계승	118	11.3
			배우자의 영농계승	560	53.7
			본인선택 귀농 창업	108	10.4
			배우자선택 귀농 창업	124	11.9
			농촌이주 및 기타	133	12.8
	영농활동	주소득작물*	곡류	402	38.5
			두류	267	25.6
			서류	247	23.7
			채소	416	39.9
			과수	284	27.2
			축산	159	15.2
			화훼 및 기타	149	14.3
	영농활동	겸업소득활동	아니오	428	41.0
			예	615	59.0
	영농활동	영농활동 지원정책 경험	아니오	614	58.9
예			429	41.1	
가사활동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아니오	766	73.4	
		예	277	26.6	
사회활동	가입 사회 단체*	작목반/연구회	202	19.4	
		조합/영농회사법인	115	11.0	
		농(축)협 조합	396	38.0	
		마을단위단체	461	44.2	
		여성농업인 단체	761	73.0	
		지역사회단체(4-H 등)	179	17.2	
		아니오	977	93.7	
사회활동	사회활동 지원정책 경험	예	66	6.3	
		아니오	417	40.0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 정책 경험	예	626	60.0	
		아니오	399	38.3	
종속변인	경영주 등록	아니오	399	38.3	
		예	644	61.7	

* : 주소득작물은 소득을 창출하는 작물 중 소득금액 상위 3개 이내로 중복응답을 허용하고 가입지역사회단체는 가입 여부에 따라 중복응답을 허용함

4.3. 여성농업인 경영주 등록 결정 영향 요인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활 분야 변인을 확인하는데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형(모형 1), 통제변인과 일 분야 변인을 투입한 모형(모형 2), 통제변인과 일 분야 변인, 생활 분야 변인을 투입한 모형(모형 3)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3이 분석 모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Nagelkerke R² = .235, 분류정확도 = 71.3%) 분석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의 분석결과 영농활동 분야 변인에서는 농업종사기간,

의사결정주도성, 영농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농업종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영주 등록이 높아지고(B=0.022, p<0.05), 의사결정주도성이 높아질수록 경영주 등록이 높아졌다(B=0.640, p<0.001). 또한 영농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경영주 등록이 높아졌다(B=0.533, p<0.001).

사회활동 분야 변인에서 작목반/연구회 가입과 여성농업인단체 가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반/연구회 가입을 한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이 높고(B=0.466, p<0.05), 여성농업인단체 가입을 한 경우

〈표 5〉 여성농업인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활 분야 영향 요인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Exp(B)	B	Exp(B)	B	Exp(B)	
통제변인	연령	50세 ~ 59세	.853**	2.346	.425	1.530	.504	1.656
		60세 이상	.451*	1.569	-.019	.981	-.090	.914
	학력	전문대졸	-.241	.781	-.022	.978	.024	1.024
		4년제 대졸 이상	-.199	.820	.080	1.084	.017	1.017
	지역	수도권	-.401	.670	-.412	.662	-.451	.75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53**	.385	-.983**	.374	-1.113**	.328
일분야 (영농활동)	농업종사기간			.030**	1.030	.022*	1.022	
	농업종사계기	본가영농계승		-.273	.761	-.382	.683	
		배우자의 영농계승		.088	1.092	.098	1.103	
		본인선택귀농창업		.138	1.148	.176	1.192	
		배우자선택귀농창업		.576	1.766	.573	1.774	
	주요 소득작물	곡류		.137	1.147	.255	1.290	
		두류		.100	1.105	.072	1.075	
		서류		-.260	.771	-.234	.792	
		채소		-.082	.921	-.063	.909	
		과수		.036	1.037	.048	1.049	
		축산		-.048	.953	-.055	.947	
	겸업소득활동			-.026	.975	-.193	.825	
	의사결정주도성			.648**	1.912	.640**	1.896	
영농활동지원정책경험			.807**	2.241	.533**	1.704		
가사활동	생활시간분배적절성					-.034	.967	
	생활SOC접근성					-.037	.963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137	1.147	
생활분야 사회활동	가입 사회단체	작목반/연구회				.466*	1.593	
		조합/농업회사법인				.228	1.256	
		농(축)협 조합				.077	1.080	
		마을단체				-.177	.838	
		여성농업인단체				.414*	1.513	
		가입지역사회단체 만족도				.051	1.052	
		사회활동 지원정책 경험				.186	1.205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충분성					-.051	.950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경험					.367*	1.428	
χ^2			37.680**		125.477**		145.723**	
Hosmer 및 Lemeshow 검정(χ^2)			11.826 (p=0.066)		17.259 (p=0.208)		4.168 (p=0.842)	
Nagelkerke R ²			.048		.219		.235	
분류정확도			61.1%		69.8%		71.3%	

* 연령의 49세 이하, 학력의 고졸 이하, 거주지역의 비수도권, 결혼상태의 배우자 없음은 기준집단으로 설정
 * 농업종사계기의 농촌이주 및 기타, 주소소득작물의 화훼 및 기타, 가입사회단체의 지역사회단체(4-H 등)은 기준집단으로 설정
 * p(0.05), ** p(0.01).

경영주 등록이 높아졌다(B=0.414, p<0.05).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분야의 변인 중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경영주 등록이 높아졌다(B=0.367, p<0.05). 여성농업인이 자기개발을 통해 영농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촌

에서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주 등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5> 참조).

가사활동 분야 변인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가사활동 분야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농업인의 영

농활동 참여와 생활에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추가적인 변인의 탐색과 분석이 필요하다.

5. 결론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수행과 영농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이 중요하고 이에 정부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활 관련 변인의 탐색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일 생활 분야 전체 모형(통제변수 투입)에서 영농활동 관련 변인 중 영농종사기간이 길수록 경영주 등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농 및 승계농인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농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의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교육 등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농에서 의사결정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농에서 여성농업인이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농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업의 보조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영농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농활동 지원 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등록하여 영농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의 6차산업화 주체인 여성농업인을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이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은미(2013)의 주장과 일치된 견해로써 여성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영농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일 생활 분야별 모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가사활동 분야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 농촌의 여성이 영농활동과 가사활동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사활동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고 생활시간 분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지원이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영농활동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과 직장 양립환경 조성과 여성의 노동가치 평가 등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김경미, 이진영, & 최윤지, 2015) 여성농업인이 가정에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가정에서의 노동 부담을 줄여 영농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관련 분야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목반/연구회 활동이 있었다. 작목반/연구회 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의 작목반/연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과 연계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영주 등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함으로써 영농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활발한 영농활동을 위해 관련 단체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를 주장한 황미진, 윤순덕, & 최정신(2017)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관련 분야는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그렇지 않은 여성농업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자기개발은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위한 스킬을 습득하여 영농활동의 성과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다양한 자기개발활동을 통해 농촌에서의 삶의 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을 하여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의 현실에서 농업생산성과 경영능력 향상

을 위해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가 지명한 당면과제라고 한 홍은파(2010)의 연구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일과 생활 측면에서의 정책적 수요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지원 정책 수혜 경험이 여성농업인 경영주 등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사활동, 사회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개인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특성 유형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유형별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농업인 가사활동 특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사활동 관련 변인 중 여성농업인 경영주 등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가사활동의 부담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가사활동이 영농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은 가사활동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이 원활하게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사활동에서 부담되는 활동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생애 및 생활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생애 및 생활적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로 여성농업인의 유형별 영농 및 생활 실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를 정책 개발과 실행에 적용하여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여성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정책적 지원의 영향에 있어서 가사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과 사회활동 지원 정책 수혜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농활동 분야와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에 비해 수혜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가사활동 지원정책과 사회활동 지원 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

으로 경영주 등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강혜정. (2012).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 과제. *젠더리뷰*, 27, 28-52.
2. 강혜정. (2013).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10(1), 43-62.
3. 공윤경. (2018). 1960년대 농촌 여가문화의 특성과 의미: 대천일기를 사례로. *한국민족문화*, 66, 297-334.
4. 김경미, & 고운미. (2005).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영농의사결정 참여 실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47-64.
5. 김경미, 이진영, & 최윤지. (2006). 여성농업인 리더의 생애경험을 통한 심리적 장애요인에 관한 소고.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3(1), 149-171.
6. 김경미, 이진영, & 최윤지. (2006).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유형별 지원 정책 개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1-121.
7. 김대회, & 신윤희. (2012). 농촌지도기관이 제공하는 농업교육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3), 23-45.
8. 김문희, & 김태중. (2020).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연구동향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2), 1-28.
9. 김승희, & 김선미. (2013). 맞벌이가족의 일-가정양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3), 355-360. <https://doi.org/10.6115/fer.2013.51.3.355>
10. 김영옥, & 김이선. (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11. 김정섭, & 이정해. (2017).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51), 1-20.
12. 김정은, & 박정렬. (2004). *주 40시간 근무제 실행 후 노동자의 생활양식 변화와 학습에 대한 태도변화 연구*. 2004년 정책기획과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13. 김주숙. (1999). 국가 및 민간연구소의 역할 정립 및 사업 추진 방향.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 방안 심포지엄*. 부산: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pp.77-86.
14.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15.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어떻게*

- 활용될까? <https://www.mafra.go.kr/mafra/293/>
16. 류기덕. (2007).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17. 마상열.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식조사와 시사점. *경남정책 Brief*, 1-8.
 18. 박영대, 김정운, 이장주, & 박정열. (2004).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조사. *여가학연구*, 2(1), 43-68.
 19. 박주혜. (2008).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전업주부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일과 삶의 조화가 전업주부의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박지은. (2021). 농촌여성의 노동분화 양상. *농촌사회*, 31(1), 7-91.
 21. 손영미, & 박정열. (2015). 한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03-215. <https://doi.org/10.5392/JKCA.2015.15.07.203>
 22. 송양호. (2005).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권익향상.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25.
 23. 신경자. (2002). 여성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의정부시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신현욱. (2000). 국가개발정책과 농촌지역 여성조직에 관한 연구: 1960-70년대 마을부녀조직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 심순자. (1996). 한국농촌여성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유은영. (2017). *FAO의 성 인지적 농식품 가치사슬 개발 세계농업*, 198, 3-22.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7. 유은영. (2018). *2018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8.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 브리프 2018. 07*. 진천: 한국고용정보원.
 29. 이상호. (2019). 가족경영협약 실태분석과 체결의향 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7(4), 425-436. <http://doi.org/10.11625/KJOA.2019.27.4.425>
 30. 이선영, & 황미진. (2019).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개선회 60주년 활동 가치에 관하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4), 1-26. doi: 10.23840/agehrd.2019.51.4.1
 31. 이성호, & 김정호. (1995).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연구*.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이윤경. (2009).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이재기. (2018). 농촌 생활 인프라가 농촌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이정해. (2017). *EU 농촌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성주류화 전략 세계농업* 198.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5. 이호철, 최수영, & 박재홍. (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사회*, 12(1), 37-62.
 36. 장혜경. (2004).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방향. *젠더리뷰*, 5, 50-54.
 37. 정기환. (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8. 정도채. (2019).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살펴본 농어촌 생활 SOC 구축 방향. *국토*, 449, 14-20.
 39. 정영금. (2006). 일·가족 균형의 촉진요인 분석 및 교육내용 개발.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4(6), 131-145.
 40. 정은미. (2012).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1. 정은미. (2013). *한국 여성농업인 지원체제와 정책 과제*. pp. 3-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42. 정은미, 김태환, & 박은지. (2020).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3. 정은미, 마상진, & 민자혜. (201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4. 정은미, 박석두, 김용렬, 김우태, & 최세균. (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5. 조영숙, 이한기, 박은식, 고성숙, 조록환, 황대용, et al. (2004). 농촌주민의 사회단체 참여와 농촌역할에 대한 인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9-116.
 46. 채구묵. (2014).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서울: 양서원.
 47. 채연주, & 윤세준. (2012). 통합과 분리: 경제활동으로 살펴본 일과 삶의 균형. *인사조직연구*, 20(2), 109-165.
 48. 통계청. (2021).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대전: 통계청.
 49. 홍은파. (2010). 여성농업인 영농교육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49-79. doi: 10.23840/agehrd.2010.42.1.49
 50. 황미진, 윤순덕, & 최정신. (2017).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4(3), 155-172. <https://doi.org/10.12653/JECD.2017.24.3.0155>
 51.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 (2018). 농가 경영이양에 대한

-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5(2), 57-70. <https://doi.org/10.12653/JECD.2018.25.2.0057>
52. Bokemeier, J., & Garkovich, L. (1987). Assessing the influence of farm women's self-identity on task allocation and decision making. *Rural Sociology*, 52(1), 13-36.
 53. Frone, M. R. (2003). Work-family balance. In J. C. Quick & L. E. Te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pp. 143-162). Washington, N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74-007>
 54. Gasson, R. (1980). Roles of farm women in England. *Sociologia Ruralis*, 20(3), 165-179. <https://doi.org/10.1111/j.1467-9523.1980.tb00706.x>
 55. Graig, R. (1979). Down on the farm: Role conflicts of Australian farm-women, In *The Woman in Country Australia Looks Ahead; Conference Proceedings*. Melbourne: LaTrobe University.
 56.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 (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10-531. [https://doi.org/10.1016/S0001-8791\(02\)00042-8](https://doi.org/10.1016/S0001-8791(02)00042-8)
 57. Illich, I. (1981) *Shadow work*. London: Marion Boyars.
 58. Kim, S. M., & Sherraden, M. (2014). The impact of gender and social networks on microenterprise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29(4), 404-417. <https://scholarworks.wmich.edu/cgi/viewcontent.cgi?article=3964&context=jssw#page=52>
 59. Lobley, M., Baker, J. R., & Whitehead, I. (2010). Farm succession and retirement: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Agriculture, Food Systems, and Community Development*, 1(1), 49-64. <https://doi.org/10.5304/jafscd.2010.011.009>
 60. Loughhead, T. A. (1989). The use of leisure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5(3), 154-163. <https://doi.org/10.1007/BF01321504>
 61. Mishra, A. K., & El-Osta, H. S. (2008). Effect of agricultural policy on succession decisions of farm household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6(3), 285-307. <https://doi.org/10.1007/s11150-008-9032-7>
 62. Morf, M. (1989). *The work/life dichotomy: Prospects for reintegrating people and jobs*. New York: Qourum Books.
 63. Mu, R., & van de Walle, D. (2011). Left behind to farm? Women's labor re-allocation in rural China. *Labour Economics*, 18(1), 83-97. <https://doi.org/10.1016/j.labec.2011.01.009>
 64. Pearson, J. (1979). Note on female Farmers. *Rural Sociology*, 44(1), 189-200. <http://pascal-francis.inist.fr/vibad/index.php?action=getRecordDetail&idt=12565135>.
 65. Poter, C., & Lobley, M. (1996). Unbroken threads? Succession and its effects on family farms in Britain. *Sociologia Ruralis*, 36(3), 268-308. <https://doi.org/10.1111/j.1467-9523.1996.tb00023.x>
 66. Rapoport, R., & Rapoport, R. N. (1975). *Leisure and the family life cycle*. London: Loutledge.
 67. Rosaldo, M. Z., & Lamphere, L. (1974). *Woman, culture, and society: A theoretical overview*.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68. Sanday, P. R. (1974). Female status in the public domain. In Michelle Zimbalist Rosaldo, & Louise Lamphere (Eds.), *Woman, culture, and society* (pp. 189-206).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69. Shortall, S. (1993). Canadian and Irish farm women: some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comments. *Th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30(2), 172-191. <https://doi.org/10.1111/j.1755-618X.1993.tb00171.x>
 70. Stiglbauer, A., & Weiss, C. (2000). Family and non-family succession in the upper Austrian farm sector. *Cahiers d'Économie et Sociologie Rurales*, 54, 5-26. <https://hal.archives-ouvertes.fr/hal-01200950/document>.
 71. Uchiyama, T., Lobley, M., Errington, A., & Yanagimura, S. (2008).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farm business transfers in Canada, England, the USA and Japan. *Japanese Journal of Rural Economics*, 10, 33-48. <https://doi.org/10.18480/jjre.10.33>
 72. Ward, C. K. (1996). Life skill development related to participation in 4-H animal science project.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4(2). http://www.joe.org/joe/1996_april/rn2.html
 73. Williams, M., & Howard, J. W. (2007). Analysis of minority participation in Texas' East region 4-H and youth development program in relationship to leadership, marketing,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2(2), 178-190. <https://www.proquest.com/openview/>

Received 03 November 2021; Revised 09 December 2021; Accepted 23 December 2021



Dr. Jiyoung Han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Anyang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 is education of agriculture and industry.
Address: (14028) 22 Samdeok-ro 37 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hjyoung@anyang.ac.kr
phone: +82-31-467-0903



Dr. Jungsoo Nam is a Researcher at INK. Co., Ltd. His research interest is education of agriculture and career education for agricultural secondary school students.
Address: (08503) INK. Co., Ltd., 171,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middlewater82@naver.com
phone: +82-2-889-0203



Mr. Yong Kim is a Researcher at INK. Co., Ltd. His research interest is agricultural distribution and rural planning.
Address: (08503) INK. Co., Ltd., 171,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ykim2332@naver.com
phone: +82-2-889-0203



Mr. Young Pyo Hong is a Researcher of Anyang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lifelong learning and complexity theory.
Address: (14028) 22 Samdeok-ro 37 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wfwlb21@gmail.com